

11월 05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0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대선 랠리` 뉴욕 일 제 급등 [다우: 9,625.28pt (+ 3.28%)]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
라이보 17일째 하락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가 17일째 하락하는 등 신용경색 완화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음.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잇단 금리 인하 등 강도높은 금융시장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됨. 1개월짜리 라이보는 전일대비 18bp 떨어진 2.18%를 기록, 지난 2004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3개월짜리 라이보도 2.71%로 15bp 내리며 지난 6월9일 이후 근 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통화스왑 사상 첫 (-)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은행 본점 몇 곳이 서울지점의 달러 펀딩 규정을 강화 - 외국인들의 현물채권 차익거래 청산 매물 -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재무부 지분 매입 대 상, 전문금융사로 확대 될 듯	미국 재무부가 지분 매입 대상 금융사를 채권보증업체와 전문금융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WSJ은 은행 및 보험사 우선주 매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유가 상승 [WTI: \$70.53 (+\$10.36)]	유로 대비 달러 가치가 지난 99년 유로 탄생 이래 하루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달러는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으로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수요가 급감하면서 급락.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경제회복이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가 폭등에 반영.
유럽증시 6일째 상승.. "약재가 안보여"	4일(현지시간) 유럽증시가 6거래일째 상승. 2007년8월 이후 가장 긴 랠리. 이날 유럽증시를 포괄하는 '다우존스 스톡스600지수'는 4.5%나 올라 233.50으로 마감.
"EU, 금융규제 강화에 뜻 모아"	유럽연합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로 결의.
재정차관 "이달말 中스 와프 윤곽 드러날 것"	"중국과는 실질적으로 스와프 규모 늘리기로 합의. 이달 하순쯤 국장급 워크샵에서 실무적 협의 예정.

제목	주요 내용
해운업계, 최대 1조원 선박펀드 조성	해운업계가 최대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고 조선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기로 함.
오바마 당선편 신재생, 바이오, IT 수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가 점차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힘.
한국 CDS금리 300bp 하회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5년만기 한국물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금리가 300bp아래로 내려서면서 국가 신용 위험이 감소. 원인으로서는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과 한미간 통화스왑이 이뤄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은행채 스프레드 축소	비지표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채와 통안채 등 비지표물들이 민평보다 낮은금리에서 거래됐지만 단기채권쪽으로 매수가 몰리지 않았음.
한은, 중국 인민은행에 통화스왑 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현재 4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놓은 상태로 추가로 100억~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존의 위안화-원화 교환이 아닌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